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1. 다음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정직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의 도덕규범들을 잘 지키는 사람을 윤리적 인간이라 말한다. 하지만 인간은 기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도덕규범을 지키지는 않는다. 인간은 “왜 정직해야 할까?”, “왜 도둑질하면 안 될까?” 등 도덕규범의 원리와 근거에 관해 질문하고 고민하여 행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 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추구한다.
- ②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아간다.
- ③ 초월적 절대자를 통해 내세의 행복을 추구한다.
- ④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성하며 살아간다.
- ⑤ 도구를 제작하여 편리한 생활을 도모하며 살아간다.

2. 갑의 관점에서 을의 주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옳은 것은?

갑: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는 편이 낫고, 만족스러운 바보가 되기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편이 낫다.
 을: 인간은 쾌락의 총량을 최대화하고 고통의 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동한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행위에 의해 생겨날 쾌락과 고통의 양이다.

- 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 ② 쾌락의 극대화를 삶의 목적으로 해야 한다.
- ③ 행위의 동기보다 결과를 고려해 행동해야 한다.
- ④ 쾌락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 ⑤ 행위의 목적은 도덕 법칙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3. 한국 사상가 갑, 을의 공통된 주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모든 종파와 사상을 분리시켜 고집하지 말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해야 한다. 이들은 모두 일(一)이면서 다(多)이고, 다이면서 일의 관계를 취하고 있다.
 을: 정(定)은 마음의 본체이고, 혜(慧)는 마음의 작용이다. 작용은 본체를 바탕으로 있게 되므로 혜가 정을 떠나지 않고, 본체는 작용을 가져오게 하므로 정은 혜를 떠나지 않는다.

————— < 보 기 > —————
 ㄱ. 우주 만물이 불변함을 자각해야 한다.
 ㄴ. 조화 정신으로 종파적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
 ㄷ. 진리와 현실의 세계가 다르지 않음을 깨우쳐야 한다.
 ㄹ. 세속적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갑, 을 사상가의 공통된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행복한 삶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잘 발휘하는 삶이다. 항상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위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행동을 습관화해야 한다. 이처럼 이성적 행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덕의 본질이다.
 을: 지혜의 덕을 가진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자기 본분에 해당하는 덕을 잘 발휘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 철학자는 모든 지식 중에서 최고의 지식인 이데아에 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 < 보 기 > —————
 ㄱ. 현실 세계에 참다운 존재가 있다.
 ㄴ. 덕이 있는 삶이 곧 행복한 삶이다.
 ㄷ. 감각적 경험보다 이성과 사유가 중요하다.
 ㄹ. 도덕 판단의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갑의 입장에서 신문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예(禮)로 돌아가면 인(仁)을 이룬다. 하루라도 극기복례(克己復禮)하면 천하가 인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인을 이룬다 함은 자기로부터이지 남으로부터이겠느냐?

○○신문 ○○○○년 ○월 ○일
 최근 전국적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 그 원인은 자식들이 노부모 부양을 꺼리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의 고독사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후략)…

- ① 남의 부모를 먼저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 ② 도덕성의 함양보다 사회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 ③ 노인을 공경하도록 도덕과 예의로 교화시켜야 합니다.
- ④ 사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예법(禮法)을 없애야 합니다.
- ⑤ 나의 부모와 남의 부모를 차별 없이 사랑하게 해야 합니다.

6. 다음은 어느 서양 사상가를 상대로 실시한 가상 설문 조사이다. 이 사상가의 국가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질 문	응 답	
	예	아니요
국가는 최고의 인륜(人倫)인가?	○	
물질이 세계의 궁극적인 본질인가?		○
역사는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발전하는가?	○	

- ①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 ②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악이다.
- ③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권력기구이다.
- ④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이다.
- ⑤ 가족과 시민 사회의 원리를 통합시킨 윤리 공동체이다.


7.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좋은 것에 대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므로 가치 판단의 기준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좋은 것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은 존재합니다. 좋은 것에 대해 알면서도 악을 행할 사람은 없습니다.



갑



을

- <보 기> —
- ㄱ. 갑은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 ㄴ. 을은 도덕적인 삶보다 실천의지를 더 강조하였다.
 - ㄷ. 갑, 을은 자연보다 인간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 ㄹ. 갑은 을보다 선한 삶과 가치의 절대성을 중시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9] 갑, 을, 병은 조선 시대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갑: 사단(四端)은 이(理)가 발(發)하고 기(氣)가 그것을 따른 것이고 칠정(七情)은 기가 발하고 이가 그것을 탄 것이다. 사단과 칠정은 연원이 다르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름을 달리하였다.

을: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는 까닭이 되는 것은 이이다. 그러므로 이와 기가 서로 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기가 발하면 이가 기를 탄다는 것은 맞지만 이가 발하면 기가 이를 따른다는 것은 옳지 않다.

병: 성(性)이란 이(理)가 아니다. 이(理)는 저절로 그러한 속성을 가진 것이다. 때문에 이(理)는 성이 될 수 없다. 성은 마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성은 마음 안에 있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성향을 말한다.

8.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은 이는 형체와 작용이 있다고 본다.
- ② 갑은 칠정을 사단이 발한 것으로 본다.
- ③ 을은 사단이 칠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④ 을은 사단과 칠정을 기가 발한 것으로 본다.
- ⑤ 갑, 을은 사단과 칠정을 성(性)으로 본다.

9. 병의 입장에서 갑, 을 모두에게 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사덕이 실천한 후에 형성됨을 모르고 있다.
- ② 욕구를 긍정적으로 보아 수양을 소홀히 하고 있다.
- ③ 경건한 자세로 학문을 탐구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④ 하늘이 인간에게 이기적 본성을 주었음을 모르고 있다.
- ⑤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양을 경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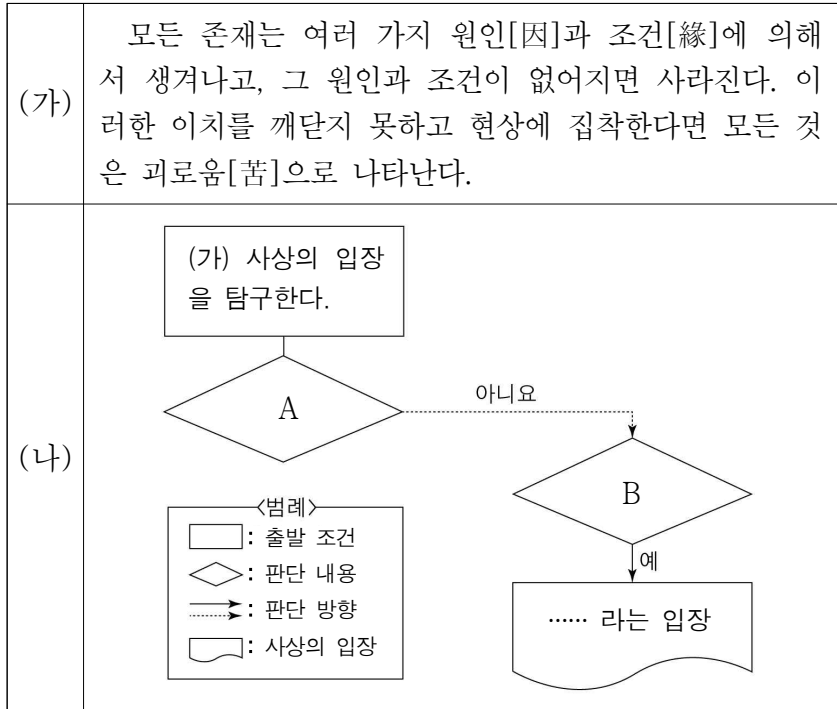
10. 다음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물 안의 개구리가 바다를 모르는 이유는 그가 사는 장소에 매여 있기 때문이고, 여름 벌레가 얼음을 모르는 이유는 그가 사는 시간에 매여 있기 때문이고, 하나의 입장만 고집하는 지식인이 도(道)를 모르는 이유는 그가 세속적 차별의식에 얽매어 있기 때문이다.

- <보 기> —
- ㄱ. 물질적 욕심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 ㄴ.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 ㄷ.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길러야 하는가?
 - ㄹ. 주관적 관점에서 사물을 평가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가) 사상의 입장을 (나) 그림과 같이 탐구하고자 할 때, A, B에 들어갈 옳은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A: 삼독(三毒)을 제거해야 하는가?
 ㄴ. A: 인간은 독립적이고 개체적인 존재인가?
 ㄷ. B: 불변하는 실체로서의 자아가 존재하는가?
 ㄹ. B: 불성을 지닌 모든 생명체를 존중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갑, 을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성(性)이 곧 이(理)이다. 이가 인간의 마음에 있으면 성이라고 하고, 사물에 깃들여 있는 것을 이라고 한다.
 을: 마음이 곧 이(理)이고 마음이 발(發)한 것이 뜻[意]이며, 뜻이 있는 곳이 바로 물(物)이다. 자기의 뜻이 어버이를 섬기는데 있다면 어버이 섬기는 일이 물이다.

- ① 갑은 앎[知]과 실천[行]에 선후가 없다고 본다.
 ② 갑은 이론적 학습이 없어도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③ 을은 우주 만물의 이치가 마음 밖에 있다고 본다.
 ④ 을은 개개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13.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만물은 신의 본성에서 필연적이고 기계적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연이라는 것을 조금도 허용할 여지가 없다. 인간의 행위가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마치 돌덩어리가 지구의 중심을 향하여 필연적으로 낙하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 ① 인격신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강조한다.
 ② 자유 의지에 따른 삶의 개선을 강조한다.
 ③ 인간과 자연을 대립하는 구조로 파악한다.
 ④ 자연의 질서에 대한 이성적 관조를 강조한다.
 ⑤ 감각적 경험을 바탕으로 참된 지식을 추구한다.

14. 다음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우산(牛山)에는 일찍이 아름다운 나무가 많았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끼로 나무를 베고, 싹이 다시 생겨나도 소와 양이 먹어버렸다. 이 때문에 우산은 민둥산이 되었다. 이를 본 사람들이 우산에 본래부터 나무가 있지 않았다고 여기나 이것이 어찌 우산의 본성이겠는가? 사람에게 있어서도 어찌 마음에 인(仁)과 의(義)가 없겠는가? 사람들이 인의를 놓쳐 버리게 되는 것 역시 도끼질로 매일매일 나무를 베어내는 것과 같다.

- ① 타고난 모든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② 인의(仁義)의 덕은 학습을 통해 생성된다.
 ③ 인간의 본성에는 선악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
 ④ 인간의 본성은 선함과 악함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
 ⑤ 인간은 누구나 남의 불행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15.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쾌락의 획득과 고통의 회피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 이때의 쾌락은 방탕함에 빠진 자포자기의 삶이나 식욕, 성욕의 충족과 같은 육체적 쾌락과는 거리가 멀다. 참된 쾌락은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 영혼의 평온에 도달한 상태이다.

< 보 기 >

ㄱ. 사치를 멀리하고 절제된 삶을 추구한다.
 ㄴ. 개인의 쾌락보다 사회적 쾌락을 추구한다.
 ㄷ. 헛된 욕망을 버리고 정신적 쾌락을 추구한다.
 ㄹ. 모든 감각적인 욕구가 충족된 삶을 추구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편적인 차원의 도덕감이 사회적 부인(否認)이나 시인(是認)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행위를 유발하며, 선과 악의 구분을 가져온다. 선악은 객관적 실재라기보다는 주관적 느낌의 문제이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바라볼 때 느끼는 쾌감이나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다.

- <보 기> —
- ㄱ. 감정을 도덕적 행위의 동기로 보았다.
 - ㄴ. 이성적 사유를 지식의 근원으로 보았다.
 - ㄷ. 사회적 유용성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 ㄹ. 방법적 회의를 통해 확실한 진리를 얻고자 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갑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의 A의 행위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은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 없이 그 자체만으로 선한 선의지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은 정언명령에 따른 행동이어야 한다.

<문제 상황>

A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길에 떨어져 있는 돈을 주웠다. 주인을 찾아줄까 고민하던 A는 주인을 찾는 일이 번거롭고 귀찮아서 돈을 구세군 자선냄비에 기부하고 집으로 갔다.

- ① 동정심에서 나온 행동이므로 도덕적 행위이다.
- ② 사회적으로 유용한 행동이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이다.
- ③ 의무 의식에 어긋난 행동이므로 도덕적 행위로 볼 수 없다.
- ④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도덕적 행위이다.
- ⑤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았으므로 도덕적 행위로 볼 수 없다.

18. ㉠의 윤리적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은/는 '무엇이 허용될 수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보다 '무엇이 훌륭하고, 무엇이 칭찬할 만하고, 무엇이 좋고 나쁜지'에 관심을 갖는 윤리이다. 또한 도덕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이상적인 인격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본받을 수 있게 한다.

- ① 도덕적 실천보다 도덕적 지식을 중시하고 있다.
- ② 행위자의 감정보다 도덕 원리를 중시하고 있다.
- ③ 덕의 습관화보다 보편적 도덕 판단을 중시하고 있다.
- ④ 개인의 인성보다 도덕적 명령과 의무를 중시하고 있다.
- ⑤ 도덕 법칙보다 행위자의 인품과 덕성을 중시하고 있다.

19. 다음 고대 동양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화를 펴지 않고 별만 준다면 형벌이 많아도 본래의 사악함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며, 교화만 펴고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면 간사한 백성들을 징계하지 못할 것이다. 상과 벌을 주되 원칙이 없다면 풍속이 험악해질 것이다.

- ① 군주는 법이 아닌 무위(無爲)로 다스려야 한다.
- ② 인간은 선천적으로 이기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
- ③ 예법에 따라 지위를 정하고 관직을 맡겨야 한다.
- ④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 ⑤ 소인(小人)도 수양을 하면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

20. 갑, 을 사상가의 '하늘[天]'에 대한 관점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 하늘은 도덕 원리의 근원이다.
- ② 갑: 하늘은 특별한 목적이 없는 자연의 질서이다.
- ③ 을: 하늘은 만물을 창조한 인격적 존재이다.
- ④ 을: 하늘은 예법(禮法)과 사회 질서의 근원이다.
- ⑤ 갑, 을: 하늘은 인위적인 사회 제도의 원천이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